



제 405 호 2015년 10월 7일 발행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 031-481-2042 FAX :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b blog.naver.com/cityansan](http://blog.naver.com/cityansan)

[t twitter.com/ansancityhall](https://twitter.com/ansancityhall)

[f facebook.com/ansancity3](https://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02면 안산소식

내국인과 외국인의 흥겨운 화합의 축제
‘2015 다문화 어울림마당’

04면 생태·관광

‘신기한 곤충의 세계로 떠나요’
와동체육공원 곤충생태체험관

06면 문화·예술

제17회 단원미술제
단원미술관에서 화려한 개막

9면 숲의 도시, 안산

선조들의 호국 혼 서려있는
별망성지

단원미술제 2015안산
DANWON ART FESTIVAL 2015 ANSAN

THE 17TH
DANWON
ART
FESTIVAL

제17회 단원미술제

2015. 10. 9 (금) – 10. 31(토)

단원미술관

개막식 및 시상식 2015. 10. 9(금) 오후 4시

프로그램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2015. 10. 9(금) – 10. 31(토)

표암과 단원의 만남 2015. 10. 9(금) – 10. 31(토)

야외특별전(행복의 바람이 불다) 2015. 10. 9(금) – 10. 16(금)

단원체험 프로그램 2015. 10. 9(금) – 10. 10(토)

김홍도 사진관(씨름, 벼타작, 포토존)

어린이 놀이마당(제기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김홍도 따라잡기, 마카로니 목걸이)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워크숍 2015. 10. 10(토) – 10. 31(토)

Artist Talk,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창작미술체험

미술관 토요일음악회 2015. 10. 10(토) – 10. 31(토)

안산시립국악단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ADAM Concert 2015. 10. 9(금) 오후 6시

성악가 · 뮤지컬가수 이엘, 개그콘서트 니글니글, 플라워 고유진 외 공연팀

주최 · 주관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Ansan Cultural Foundation

후원 농협 안산시지부 KDB산업은행 안산지점 KDB산업은행 반월지점

문의 단원미술관 031-481-0507
Danwon Art Museum

내국인과 외국인의 흥겨운 화합의 축제

2015 다문화 어울림마당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체육 축제인 '2015 다문화 어울림마당'이 오는 10월 18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국인주민센터 앞 부부로 및 초지임시운동장과 관산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언어·인종·국경을 초월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어울림마당 축제는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었으며, 기존에 운동경기중심의 축제를 벗어나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안산시와 중부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축구대회가 초지임시운동장에서, 배구대회가 관산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행사일보다 한 주 앞선 10월 11일 오후 6시에는 관산체육관에서 태권도 품

새 및 격파 대회로 체육행사가 개최된다.

한편 나라별 퍼레이드 및 전통공연과 민속의상 입기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며,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 체험행사도 열릴 예정이어서 각국의 문화와 음식을 한자리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행사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짝을 지어 함께 참여하는 커플 장기자랑이 진행될 예정인데 화합과 소통이라는 어울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흥겨운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인기가수의 초청공연으로 축제분위기를 한층 더 북돋아 가을날 즐겁고 뜻 깊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하다.

·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 031-481-3733)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랑 중심 안산특별시



2015 다문화 어울림마당

Date 2015년 10월 18일 (일)
09:00~18:00

Place 외국인주민센터 앞 도로 (부부로 43), 관산체육관, 초지임시운동장

주최 안산시 / 중부일보
주관 안산시
후원 한국가스공사

화합마당	참여마당	나눔마당
· 음식행사 : 세계의상퍼레이드, 화합 세러머니 · 축하공연 : 초청공연, 사상, 화합 퍼포먼스	· 체육대회 : 배구, 농구, 태권도 · 공연대회 : 다문화가족 장기자랑, 레크레이션	· 어울림 광장 놀이존 · 어울림 프리마켓존 · 어울림 나눔존 / 어울림 체험존

※ 부부로 일부구간 교통통제 : 2015.10.18.(일) 06:00 ~ 21:00



2015 안산시 고용우수기업인증제 시행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신청요건 : 안산시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중소기업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고, 근로자 증가율이 5%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
· 중소기업(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 고용증가 5명 이상, 증가율 5% 이상
· 소기업(종업원 50인 미만) : 고용증가 3명 이상

신청기간 : 2015. 10. 19.(월) ~ 11. 06.(금)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민원동 2층)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3278)

※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시정안내-시정소식-고시공고 참조

인센티브

-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선정 우대
- 국내·외 무역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선정 우대
-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 우대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선정 우대
- 해외지사화 사업 선정 우대
-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선정 우대

안산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다양한 인센티브로 일자리창출 분위기 활성화

안산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안산시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기업 모집공고에 나섰으며 오는 11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안산시에 소재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고,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며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들이 신청대상 요건이 된다.

신청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며, 신청방법은 해당기업체가 안산시 일자리정책과(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기업은 인증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심사·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안산시 고용우수기업으로 11월말에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이며, 일자리고용 우수기업 인증서·현판 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국내·외 무역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선정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시의 성장 열쇠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 031-481-3278)

안산시, 국내 최초 NFC칩을 활용한 보안등 온라인 및 스마트폰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안산시 단원구청은 국내 최초로 'NFC칩'을 이용하여 보안등을 관리한다.

단원구청은 관내 약 4,700여 보안등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장신고와 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민원인이 표찰 근처에 스마트폰을 대면 스마트폰에 내장된 NFC칩과 표찰에 내장된 NFC칩이 자동 연동되어 해당 보안등의 고장신고 화면으로 바로 연결됨으로써 고장내용을 전송하면 바로 시스템에서 신고내용을 접수, 현장수리업체에 바로 전송돼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접수·처리결과가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인에게 실시간으로 안내되어 민원인이 신고한 민원의 처리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단원구는 QR코드를 표찰에 삽입하여 스마트폰과 연동한 고장신고 체계를 갖춘 다른 기초자치단체는 있지만 NFC칩을 이용하여 민원신고를 시도하는 시스템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의 전화를 이용한 고장신고는 접수 후에 신고내용을 현장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보안등의 특성상 정확한 신고위치 파악이 쉽지 않아 고장수리를 하는데 처리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단원구는 12월까지 관내 모든 보안등에 NFC칩이 내장된 표찰을 부착하고, 설치이력과 좌표를 획득하는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단원구청 건설행정과장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민원인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보안등의 접수 및 처리된 민원을 DB화를 통해 누적된 민원데이터를 빅 데이터화해 향후 다양한 구정의 정책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단원구청 건설행정과 (☎ 031-481-6445)



표찰에 내장된 NFC칩이 스마트폰과 자동 연동되어, 해당 보안등의 고장내용을 시스템에서 접수, 수리업체에 전송돼 실시간 처리 가능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말로 가는 1636 서비스’

“이제는 더 이상, 동 주민센터 전화번호를
찾거나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안산시 단원구는 열린 행정의 일환으로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행정기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말로 가는 1636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구민들이 동 주민센터에 전화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114 안내전화를 통해 행정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통화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말로 가는 1636 서비스'는 집 전화나 핸드폰으로 '1636'을 누른 후, 원하는 동 주민센터를 말하면 바로 연결되어 간편하게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원구청 관계자는 "사람 중심의 가치를 창조하는 행복한 단원구를 만들기 위해 민원불편 사항, 행정개선 사항 등을 꾸준히 찾아내어 참신한 행정서비스로 구민만족 행정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 031-481-6300)



소중한 꿈을 키우는 ‘희망키움통장Ⅱ’ 신규가입자 모집

안산시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 2015년도 4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수급자(생계·의료)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지난해 7월 도입되었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인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가입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매월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1:1로 적립되며, 교육·사례관리 연 4회 이상을 수행하고 3년간 통장 유지시 가입기간(3년)동안 총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안산시 복지정책과 (☎ 031-481-2377)

‘신기한 곤충의 세계로 떠나요’ 와동체육공원 곤충생태체험관



지난 9월 18일(금), 단원구 와동체육공원에 귀여운 잠자리모양의 조립건물이 세워져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잠자리 모양의 건물은 규모 100㎡(20m×5m)의 도심 속 곤충생태체험관으로 어린아이를 비롯해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서 다양한 곤충표본과 살아있는 곤충들을 보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다.

와동체육공원 곤충생태체험관은 세월호 최대 피해지역 중 한 곳인 와동의 지역자치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희망마을만들기추진협의회를 결성해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1월 와동주민센터 2층 전시실에 마련했던 곤충특별기획전이 인기가 좋아 더 많은 관람객이 찾아주길 기대하며 와동체육공원 안에 새롭게 개설했다.

곤충체험관에서는 책이나 TV로만 보던 다양한 곤충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곤충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18일 개관 이후 지금까지 수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는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어린 아이를 안고 온 주부까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부담이 없는 와동 곤충체험관은 협의회 회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표구를 만든 60여 종의 표본이 전시돼 있다. 또한,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유충까지 마련돼 있어 곤충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심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풀어내고 있다. 온몸이 털로 뒤 덮인, 아이 손바닥 크기의 독거미 타란툴라, 호랑이 얼굴이 보이는 호랑나비, 표범무늬의 표범나비, 나방 같은 모습의 산누에

나비, 전갈, 꿀을 모으는 호박벌, 살아있는 도마뱀 등 파충류와 다양한 곤충들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체험관 밖에는 곤충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네의자 포토존이 마련돼 관람객에게 또 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해준다. 곤충생태체험관 관계자는 “어린이 관람객에게 더 다양한 종류의 곤충을 보여주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많은 종의 곤충을 들여올 계획”이며, “곤충그리기 대회 등 체험 또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동체육공원 생태곤충체험관은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개방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 문의: 와동곤충생태체험관 ☎ 031-481-6451

백미란영예기자 <whity0218@naver.com>



가을을 느끼기에 부족함 없는 곳

○ 대부 해솔길 6코스

대부해솔길 6코스 (6.8km)
(소요시간: 2~3시간)

경기창작센터 ▶ 선감어촌체험마을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불도방조제 ▶ 정문규 미술관 ▶ 탄도

가을이 무르익어간다. 경기창작센터(단원구 선감로 101-19)에서 해솔길을 알리는 리본(석양등자색, 갯벌은 색)에 이끌리듯 시작한 해솔길 6코스는 몇 걸음 내딛자마자 편안함을 선물한다.

오른쪽에는 아름다운 조형물이 보이고, 왼쪽에는 누렇게 익어 고개 숙인 벼이삭이 바람에 몸에 맡긴 채 흔들리고 있다. 농로를 따라 걷다보니 선감어촌체험마을 이정표가 보인다. 65가구 140여 명이 살고 있는 선감어촌체험마을은 계절별로 조개잡이, 후리질(후릿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일), 갯벌벌매, 포도 따기, 고구마 캐기, 4륜오토바이, 감자 캐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많은 사람들을 태운 마차를 끌고 다녔을 트랙터가 평일엔 한가로운 바닷바람을 쏘이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다시 발길을 재촉하니 여름내 달콤함으로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포도밭이 보인다. 포도의 달콤함을 떠올리며 눈길을 돌리니 아기자기한 펜션이 보인다. 아름다운 바닷가가 눈앞에 펼쳐진 펜션에서의 휴식은 생각만으로도 감미롭다. 펜션을 뒤로하고 걷다보면 경기도청소년수련관이 보인다. 2001년 개원한 이곳은 숙박시설과 문화시설, 체육시설과 야외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은 물론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길을 걷다 갈림길이 나올 때면 어김없이 리본이 방향을 알려준다. 불도방조제 길을 지나 야트막한 산길을 넘



으니 저 멀리 정문규미술관이 보인다. 정문규미술관은 2009년 문을 연 사립미술관으로 정문규 관장의 작품세계를 엿볼 수 있고 다양한 전시와 연주회를 열고 있다. 현재는 한국화단의 70세 이상 현역 원로작가 52인을 초대하여 ‘아직도 우린 현역이다’를 주제로 11월 8일까지 전시한다.

미술관을 나와 길을 건너면 다시 숲길로 들어선다. 가을별을 즐기며 걷다보니 대부광산 퇴적암층을 알리는 이정표가 보인다. 대부광산 퇴적암층의 면적은 약 106,336㎡로 채석장이었던 이곳에서 1997년 1억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24cm 크기의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었고 이후 중생대 백악기의 동·식물 화석도 20점이나 발견되면서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3년 경기기념물 제194호로 지정되었다.

지금은 잔잔한 호수와 퇴적암층 뿐이지만 아주 옛날

에는 거대한 몸집의 초식공룡들이 활개치고 다녔을 것을 상상하니 잠시나마 시간여행을 하는 듯하다.

다시 발길을 돌려 6코스 종점인 탄도로 향한다. 저 멀리 누에섬이 보이고 풍력발전기가 보인다. 갯벌 생태계와 어촌 주민의 생활모습을 볼 수 있는 안산어촌민속박물관에 들러 잠시 다리도 쉬고 출항하기 전 뱃사람들이 불렀다는 노래도 들어본다.

이곳저곳 둘러보며 쉬엄쉬엄 걸어도 2~3시간이면 넉넉한 대부 해솔 6코스. 출발했던 경기창작센터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섰다. 정류장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내게 말을 건다. ‘함께여서 더 멋진 가을이었어.’라고.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심장을 울리는 두드림으로 세상을 두드리다

안산시에비사회적기업, ‘한국타악퍼포먼스협회 난타 인 안산(NANTA in ANSAN)’



지난 1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공연을 한 난타 인 안산 공연단 ‘블랙퀸’과 동아리회원들

한국인의 유전자에는 팽과리·징·장구·북으로 구성된 사물놀이 장단에 반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신명과 들썩임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올해 6월 1일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에 이름을 올린 ‘한국타악퍼포먼스협회 난타 인 안산’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국악장단과 대중음악을

접목시킨 난타작품으로 안산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 외에도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국악을 전공한 김대권 대표는 1996년 난타를 접한 후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는 난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이후 2010년에 ‘한국타악퍼포먼스협회 난타 인 안산’을 설립해 다양한 교육사업과 봉사활동을 해왔다. 창의적이고 독특

한 타악 음악을 위한 연구와 재활용품과 폐자재를 활용한 창작 타악 등 전통 타악의 신명과 서양음악을 결합한 퓨전 난타 콘서트로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현재 난타를 배우고 즐기면서 삶의 활력을 찾는 수강생들은 100여 명에 이른다. 대부분은 전업주부이지만 10여 명의 남성들도 있다. 공연팀인 블랙퀸의 멤버로 활동하는 차민진 씨(45세, 시흥 하중동)는 “난타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매력이 있어요. 주부로 살면서 물어두었던 것들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라고 말했다. 가족들의 반응을 물었다. “분장을 하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놀라기도 하지만 엄마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지정은 무엇을 의미할까? 김대권 대표는 “협회를 설립하면서 꾸준히 해왔던 교육과 봉사, 일자리 창출 등의 활동이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부합되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정 부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같은 무대공연을 하더라도 조금 더 모양새를 갖추 수 있다.”고 말했다. 난타 인 안산은 11월 안산문

화예술의전당에서 ‘심장을 울리는 두드림 난타 Holic Show’를 준비 중이다. 이 공연은 극단 결판과 함께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으로, 향후 요건 충족 시 사회적기업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일컫는다. 안산시에는 현재 인증사회적기업 12개소, 예비사회적기업 12개소, 사회적협동조합 59개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개소, 마을 기업 4개소, 자활기업 5개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다.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육성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를 바탕으로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의 :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31-481-3521)
<http://www.ansanse.or.kr>
한국타악퍼포먼스협회 NANTA in ANSAN
(☎ 031-408-8305)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2015년 제4회 소상공인창업기본교육

□ 교육개요

- 일 시 : 2015. 10. 15(목) ~ 10. 16(금), 2일간, 총 12시간
- 장 소 : 상록구청 상록시민홀
- 교육인원 : 200명(예비창업자 및 기존 소상공인)
- 교육비 : 무료, 교재 제공
- 교육기관 : 안산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교육혜택 : 소상공인 창업자금 신청자격 부여
 - 창업교육 수료증(12H) 발급
 -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선참여 자격 부여
- 신청방법 : 온라인 선착순 접수(www.egbiz.or.kr)

□ 세부교육내용

구 분	시 간	과 목
1일차 (10/15)	9:45 ~ 10:00	• 교육안내
	10:00 ~ 10:20	• 시장님 인사말씀
	10:20 ~ 12:20	• 기초노무
	13:20 ~ 15:20	• 상권입지분석
	15:20 ~ 17:20	• 점포수치분석
2일차 (10/16)	10:00 ~ 12:00	• 창업기초세무
	13:00 ~ 15:00	• 소점포 마케팅 전략
	15:00 ~ 17:00	• SNS 마케팅
	17:00 ~	• 수료증 배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과일·채소



○ 고구마의 효능

- 변비 해소 효과 : 고구마의 단면에서 나오는 흰색 진액인 아라핀은 배변을 부드럽게 해 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어 변비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고혈압 예방 효과 : 고구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칼륨이 체내 염분을 조절하여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암 예방 효과 : 암의 원인인 과산화지질의 발생을 억제하는 비타민E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맛있는 고구마 고르는 방법

- 잔털이 적고 모양이 매끈한 것이 맛이 좋습니다.
- 껍질의 색이 균일하고 선명한 것이 맛있는 고구마입니다.

○ 고구마를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

-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체내 나트륨이 소변으로 배출되어 고혈압에 좋습니다.
-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있는 고구마와 귤을 함께 먹으면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고구마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구마 바스 만들기

1. 고구마의 껍질을 벗겨주세요.
2.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 고구마의 전분을 제거해주세요.
3. 고구마의 물기를 키친타월로 닦아 제거하고 160℃ 정도의 기름에 튀겨주세요.
4. 고구마가 익으면 건진 후 프라이팬에 설탕 3큰술과 식용유 2큰술을 넣어주세요.

말로하는 전화

1636

수화기를 들고 **1636**을 누른 후
“안산시청”이라고 말하세요!

제17회
단원미술제

공모방식 변화로 새롭게 도약
오는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화려한 개막



대상 수상자 김재호 작가

대상 수상작 ‘기다림’

안산시는 오는 10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원미술관에서 ‘2015단원미술제’를 연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2015단원미술제는 미술부문에서 선정작가 공모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전국 규모의 대한민국 대표 미술제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단원미술제 미술부문에는 전국에서 400여 명의 우수한 작가들이 2,367점을 출품, 선정작가 공모에 지원하여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21명의 작가들이 선정되었다. 1차 심사에서는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심사방식으로 21명의 작가를 선정했고, 2차 심사에서 작품의 창의성과 독창성 그리고 작품의 완성도에 역점을 두고 평가하여 대상과 단원미술상, 특별상 등 1차에서 선정된 작가의 우열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바뀐 공모방식을 통해 최종 선정된 단원미술제 대상에는 조각가 김재호 씨가 선정되었다. 김재호 작가(34세, 경기 용인시)는 인간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공간이나 사물, 자연 등을 보고 느끼며 작가만의 공간 속에 내재된 무의식과 의식적 세계를 펼쳐 놓은 작품세계를 선보이는 작가이다.

2015 단원미술제

미술문화행사로 초대합니다

단원미술제 개막식 및 시상식

2015. 10. 9(금) 오후 4시
장소: 단원미술관 야외 행사장
내용: 선정작가 시상식
개막 축하공연(안산시립합창단, 안산시립국악단)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워크숍

2015. 10. 10(토) - 10. 25(일)
장소: 단원미술관 영인본관
내용: Artist Talk(선정작가와와의 만남),
지역작가와 함께하는 창작미술체험
- 개인관람객 대상 예약제 운영
(단원미술관 홈페이지 www.danwon.org)

단원미술제 선정작가전

2015. 10. 9(금) - 10. 31(토)
장소: 단원미술관 제1관
내용: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작품전시

미술관 토요일음악회

2015. 10. 9(금) - 10. 31(토)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 단원미술관 제2관
내용: 안산시립국악단 공연

표암과 단원의 만남

2015. 10. 9(금) - 10. 31(토)
장소: 단원미술관 제3관
내용: 표암 강세황과 단원 김홍도 작품전시

ADAM Concert

2015. 10. 9(금) 오후 6시
장소: 단원미술관 야외 행사장
내용: 단원미술제 및 단원미술관 제3관 개관 기념 공연
성악가·뮤지컬가수 이엘, 개그콘서트 니글니글,
플라워 고유진 외 공연팀

단원체험 프로그램

2015. 10. 9(금) - 10. 10(토)
장소: 단원미술관 야외 행사장
내용: 시민들과 함께 김홍도의 그림을 주제로
현대와 전통이 조화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 김홍도 사진관(씨름, 베타작, 포토존)
- 어린이 놀이마당(제기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김홍도 따라잡기, 마카로니 목걸이)

야외특별전(행복의 바람이 불다)

2015. 10. 9(금) - 10. 16(금)
장소: 노적봉폭포공원 둘레길
내용: "행복의 바람이 불다"를 주제로 한 작품 전시

※ 행사장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홈플러스 4층 주차장(연결통로)** 및 **노적봉 폭포공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승 운영위원장은 “공모방식을 변경하여 진행된 올해 단원미술제에는 독창성과 작품의 완성도가 뛰어난 400여 작가가 지원하여 치열한 경쟁을 보여 명실공히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2015단원미술제의 시상식 및 개막행사는 오는 10월 9일 오후 4시에 단원미술관에서 다양한 퍼포먼스 공연과 함께 진행되며 김홍도 사진관, 어린이놀이마당 등 단원체험프로그램이 10월 9일과 10일 양일간 단원미술관 야외광장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기간에는 단원미술관 3관 개관식도 진행되어 단원 김홍도의 ‘사슴과 동자’, 표암 강세황이 그린 ‘헌정승집도’ 원본 작품이 공개 전시되어 관람객들은 17세기 조선시대 안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문의: 단원미술관 ☎ 031-481-0503

그 거리에 가면
거리예술을 만날 수 있다

매주 수요일 음악, 무용, 마술 등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거리로 나온 예술은 매년 초에 음악, 무용, 마임, 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아마추어 공연가들을 공모방식으로 선발하여 거리, 광장, 공원 등에서 자유롭게 진행되는 공연이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가까이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되며, 아마추어 공연가들에게는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 7일 상록수역 앞 광장공연을 시작으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 힐링을 줄 계획이다.

• 문의: 안산시 문화예술과 ☎ 031-481-2068

일자	시간	공연분야	공연팀명	공연장소	공연내용
10월 7일 (수)	18:30	음악	도리토리	상록수역 앞 광장	여쿠스틱합창
	19:00	음악	안산심포니 오케스트라	상록수역 앞 광장	오케스트라
10월 14일 (수)	18:30	다원	나눔소리	안산문화광장	진도북춤, 민요
	19:00	음악	포크패밀리(구 꼬미밴드)	안산문화광장	7080포크
10월 15일 (목)	18:30	음악	유니밴드	고잔신도시	밴드공연
	19:00	음악	투스토리 노래이야기	고잔신도시	통기타
10월 21일 (수)	18:30	음악	박기형	중앙역 앞	대금연주
	19:00	다원	크레이지타	중앙역 앞	난타 공연
	16:00	음악	조이밴드	대부동복지관	통기타밴드
10월 23일 (금)	18:30	음악	좋은사람들 밴드	상록수역 앞 광장	밴드공연
	19:00	음악	레몬트리 앙상블	상록수역 앞 광장	오카리나 연주
10월 24일 (토)	16:30	무용	정시현 무용단	안산문화광장	현대무용
	11:00	음악	M.A.S	올림픽기념관 앞 광장	발라드, 락
	11:30	다원	블랙퀸	올림픽기념관 앞 광장	난타 공연
	15:00	음악	쟁이들의마음	화정천(화정초교 옆)	대중가요
	15:00	음악	뮤직스페이스컴퍼니	화정천(화정초교 옆)	통기타, 색소폰
10월 28일 (수)	18:30	음악	전자베짖이	안산문화광장	대중음악, 팝음악
	19:00	음악	포크패밀리(구 꼬미밴드)	안산문화광장	7080포크

*우천시 공연취소 될수 있습니다.

커피 향이 이끄는 힐링거리 ‘2015년 안산커피거리축제’ 연다



안산시는 오는 10월 24일~25일 이틀간 안산문화광장 일대를 대상으로 가을의 정취와 어울리는 ‘2015년 안산커피거리 축제’를 연다.

안산커피거리축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문화광장에 형성된 커피거리를 알리고자 개최되는 행사다. 문화광장의 중앙 행사장 외에 골목 안의 커피전문점을 직접 찾아가 커피전문점별 이벤트에 참여하여 골목 커피전문점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문화광장 뒤편 골목 6개소에 작은 공연장을 설치하여 매 시간 다양한 거리공연을 함으로써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골목을 찾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광장의 썬큰 광장에서는 24일 밤에 안산문화재단의 협찬을 받아 커피문화콘서트를 개최하여 문화공연 및 아마추어 커피대회 결선무대와 커피관련 OX 퀴즈를 통해 커피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고 그외에도 커피 핸드로스팅, 핸드드립 등 체험행사와 더불어 다양한 프리마켓을 축제 기간 내 상시 운영한다.

이에 따라 단원구에서는 10월 15일까지 커피관련 기구, 커피로 만든 제품, 그림 등 예술품과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코자 희망하는 프리마켓 셀러와 거리공연을 희망하는 공연팀을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과 단원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커피거리 축제 담당자는 “전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커피축제에 비하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안산커피거리축제는 걸음마 단계로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이번 축제를 발판 삼아 안산만의 특색 있는 커피거리축제로 정착되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 031-481-6233

희망 품고 다함께 달리다! 2015안산희망마라톤대회

안산시 승격 30주년 기념하며 미래향한 희망 담아



2015안산희망마라톤대회가 지난 10월 4일 와~스타디움에서 열렸다. 2011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안산희망마라톤대회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딛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의지를 담아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희망으로 달린다.’를 슬로건으로 했다. 안산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며, 앞으로의 30년 그 이상의 시간은 시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 또한 담았다.

안산시와 경인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

번 대회에 마라톤 동호인 6,500명이 참가했다. 610개의 동호회에서 5,120명이 단체로 참가했고 개인은 1,380명이 참가해 가족·동료·친구·이웃의 응원을 받았다. 참가구분은 하프코스에 남자 490명과 여자 43명이, 10km는 남자 1,390명 여자 382명, 5km는 남자 2,167명, 여자 2,025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6,500명 중 안산시민 5,531명을 제외한 1천여 명이 서울·인천·강원·충북·충남·대전·전북·광주·경북·대구·부산 등 타 시·도에서 참가할 정도

로 안산 마라톤 대회는 규모 있는 전국대회로 자리 잡았다.

마라톤은 흔히 인생에 비유된다. 힘차게 출발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통이 온다.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면 ‘왜 이 고통을 사서하지’하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 하지만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속도를 줄여 천천히 걸을 수는 있지만 끝까지 멈춰 설 수 없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게 된다.

김종성 어르신(68세, 성포동)은 이번 대회에서 10km를 뛰었다.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이 나 작년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면 네 번째 출전이다. 남에게 떨어지지 않겠다, 혹은 좋은 기록을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매회 완주를 목표로 달렸다. “한 걸음도 건지 않고 1분도 멈춰 서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뛰었습니다. 달리기, 참 좋은 운동입니다. 이 운동으로 86kg의 체중을 66kg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는 뛸 수 없을 때까지 이 운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금속)는 1시간 47분 8초로 하프코스 여자 5위를 기록했다. “직장에 마라톤 동호회가 있었는데 해체됐어요. 8시에 퇴근

해 1시간씩 일주일에 2~3번 혼자 달립니다.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년에 정년퇴직하고 마라톤으로 다져진 체력을 바탕으로 취미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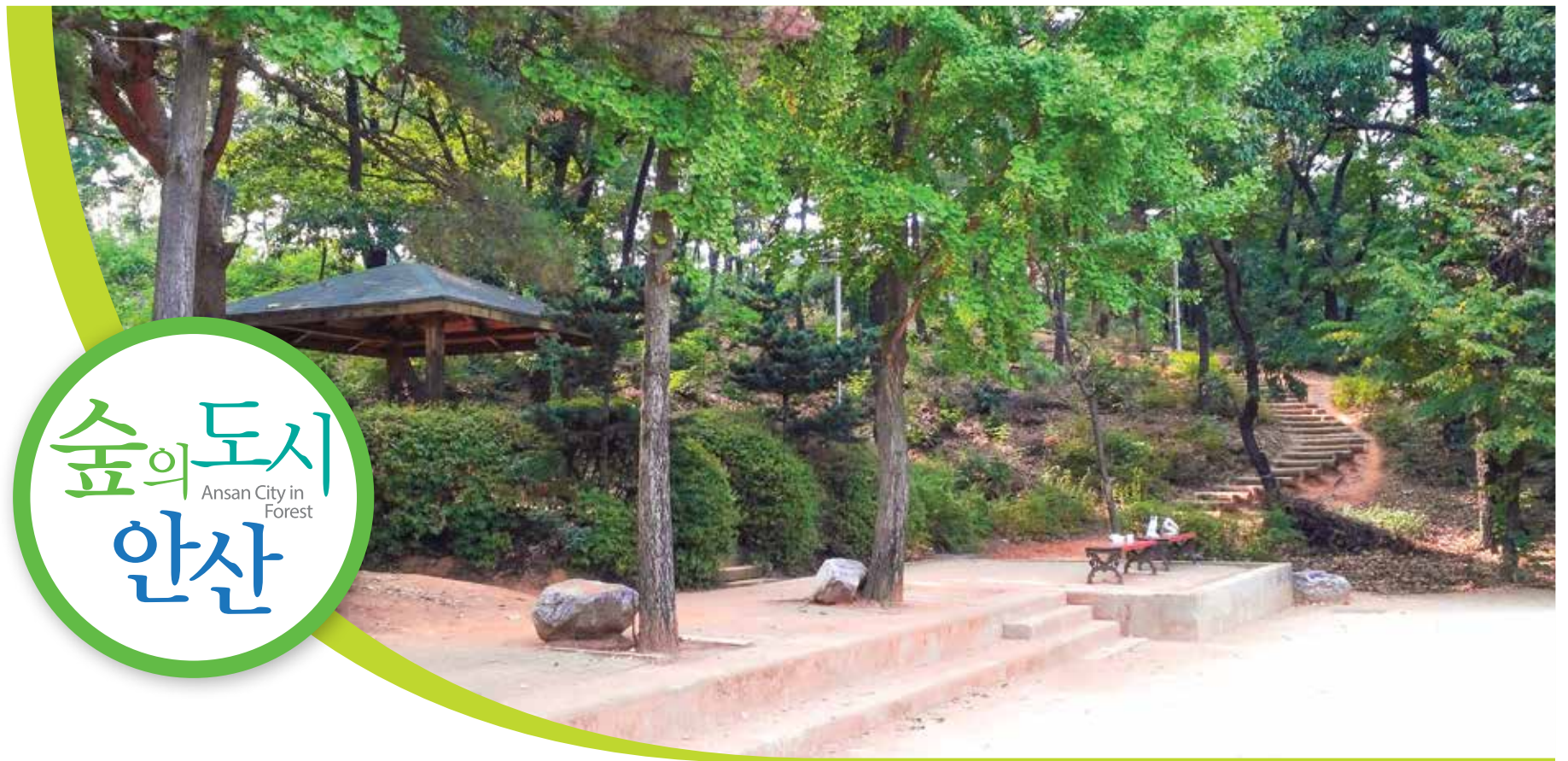


원곡동 거주 3년차인 Gakio Dave-peter(28세, 케냐)는 10km 남자부 1위를 차지했다. 장거리 달리기 강국 케냐 출신으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그의 기록은 37분 42초이다. “평탄한 길이 계속 이어지는 코스도 좋고요. 날씨도 달리기 좋았어요.” 안산이 좋다는 그는 이곳에서 계속 살면서 내년 대회 하프코스에 참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선부1동 주민 위혜영 씨(38세)는 경품추첨으로 드림세탁기를 받았다. “여동생과 함께 5km에 참가했는데요, 마라톤 참가라는 경험 외에 경품까지 받게 돼 오늘 대회가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안산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비빔밥과 막걸리를 준비해 참가자들을 대접해 풍성함을 더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최정걸 장군의 이야기가 깃든 '오목골 공원'

오목골 공원(상록구 본오동 산 80-1)은 2001년에 조성됐다. 47,210㎡ 면적의 낮은 야산에 퍼걸러, 산책로, 배드민턴장 등 체육 시설이 있고, 소나무, 단풍나무, 상수리나무, 후박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등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심겨 있다.

예전 사리역 뒤, 현재 안산동산고등학교를 지나 이호초등학교 방향으로 들어오면 북쪽으로 산 아래쪽에 최정걸 장군 묘가 있다. 최정걸(崔挺傑) 장군 묘는 1991년 11월 2일 안산시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되었으며, 양주 최씨 문중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다. 묘역 입구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최정걸은 무과 출신으로 절충장군을 지낸 후 귀향하여 사동 감자골에서 지내던 중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남한산성에 고립된 인조(仁祖)를 구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게 되었다. 최정걸은 떠나기 전날 밤 부인에게 속적삼을 달라고 했다. 부인이 “그건 무얼 하시려우?” 하니 최정걸이 “만약에 내가 전사를 했을 경우에 무얼 보고 나를 찾겠소?” 하였다. 사람은 머리가 없다면 도저히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정걸이 남한산성에서 죽은 후, 최정걸의 시체를 찾으려고 하였는데 도저히 찾을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옷을 모두 벗겨 보니

여자 속적삼을 입은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속적삼을 보고 최정걸의 시신을 수습하여 현재의 산소를 만들었다고 한다. 최정걸의 산소가 있는 산에는 나무가 무성했다. 산 아래에는 한 20여 호가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산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신성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신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다 뭐야” 하면서 산을 거의 100㎡ 정도 개간하여 양계장을 지었다. 그런데 양계장 안에 닭을 넣으면 죽고 넣으면 죽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두 손을 들고 떠나 버렸다고 한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산의 나뭇가지 하나만 꺾어도 화를 입는다고 믿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공원에 오르는 계단 여기저기에서 도토리 껍질과 밤송이, 솔방울이 지천이다. 고즈넉한 공원에서 새소리와 함께 ‘후두둑’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다람쥐라도 만날 듯 마음이 설렌다.

너도밤나무과의 신갈나무·떡갈나무·갈참나무·줄참나무,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생긴 많은 변종의 열매를 모두 도토리라고 한다. ‘마음이 맞으면 도토리 한 알을 가지고도 시장을 멈춘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아무리 가난하여도 서로 마음이 맞으면 모든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도토리 줍는 사람들도 보이고, 아주머니 셋이서 저녁거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벌써 몇 바퀴째 산책로를 돌고 있다.

상록구 로보갑순찰대원이 본원초등학교에서 오목골 공원을 둘러본 뒤 이호초등학교 옆길로 총총히 걸음을 옮긴다. 퍼걸러에서는 어르신들이 홀로 책을 읽고 있다.

오인환 어르신(73세, 본오동)은 동묘시장에서 사온 책을 보여주며 “퇴직 후 올 4월까지 일을 해오다가 쉬고 있는데, 올 여름에는

이 공원에서 책을 읽으며 더위를 식혔어요. 책 한 권 들고 올라와 공원을 한 바퀴 둘러본 후 이렇게 그늘에서 책을 읽다보면 참 좋아요. 자주 오다보니 친구도 생기고 그렇니다. 며칠 만에 왔더니 오늘은 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네요. 대장암 수술했는데 건강은 괜찮은지...”라며 한숨을 쉰다.

이름도 모르는 이웃의 안부를 물으며 사는 이웃들이, 사람들이 정겨운 오후다.

•참고문헌 : 안산시사,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신선영 명예기자(woghk@hanmail.net)



선조들의 호국 혼 서려있는 별망성지



초지동 반월공단 초입에는 해안가 야산 봉우리를 서로 연결해 돌을 쌓아 만든 해안산성 별망성지가 있다. 여곳(汝串) 또는 초지영(草芝營)이라고도 불렀던 별망성은 조선시대 경기도 남양만을 거쳐 해안으로 침투하는 외적을 막기 위해 쌓았던 산성이다.

별망성은 성곽이 해안에 연결한, 평지를 감싸 안은 디귤자 형태로 선박의 출입이 가능했다고 한다. 성벽의 바깥쪽은 돌을 수직에 가깝게 쌓았고, 안쪽은 흙을 완만하게 다져 놓은 상태로 바닷가에서 내륙을 향하여 방어하도록 되어있다. 성안에는 곳곳에 군대가 머물렀던 60m² 안팎의 편평한 터가 있어 그 언저리에서는 자기와 기와 조각 등 유물이 출토되었다.

왜구들의 침입이 잦은 경기도 서해안

일대에 만호부를 설치했다는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이곳에는 수군 만호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별망성은 15세기 초 축조되어 17세기 중엽 강화도로 군영이 옮겨가기까지 250년간 배가 드나들던 수로를 보호하고 해안선을 지키면서 서해안 방어의 요충지 역할을 했다.

현재는 흔적조차 없지만 석축성과 연결되었던 토성 부근에는 또 하나의 망루가 있어 수군 보호와 함께 해안을 경계하고 방어하였다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별망성의 망루는 육지를 향하고 있는데 이는 별망성이 안산 최초의 포구 원당포와 해군기지 격인 초지진을 보호하기 위한 성이었기 때문이다.

별망성은 원래 둘레 1,040m, 높이 1.2~2.1m의 규모이다. 하지만 오늘날 시

민들이 만날 수 있는 모습은 6.25전쟁 때 대부분 파괴되어 1988년 복원한 길이 225m 높이 1.45m의 성곽뿐이다. 성곽 위에 올라서서 해안 쪽을 바라보면 탁 트인 시야 사이로 멀리 대부도와 화성시가 지 눈에 들어온다. 성곽 왼쪽 편으로는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들어선 초고층 아파트가 보인다. 오른쪽으로는 뽕뽕이 들어선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있다. 지금은 별망성 부근이 전부 매립되어 공장지대로 변모했지만 옛날에는 배가 드나들던 깊은 바다였다.

안산시는 매년 9,10월 열리는 별망성 예술제에서 선조들의 호국정신이 서려있는 별망성지를 돌아보는 프로그램 '툭아보기'를 진행하고 있다. 안산시민들은 툭아보기에서 별망성지를 알아가며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조상들의 숭고한 정신과 바다가 육지로 변한 격세지감 속에 누워있는 경기도 기념물 제73호를 만날 수 있다.

백미란 명예기자 (whity0218@naver.com)



“안산시의 도시숲은 안산시민에게 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를, 심리적 치유와 보다 나은 삶을 선물합니다.”

자연공존의 숲

시민들이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자연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생명의 숲

녹색가로의 숲

맑은 하늘과 청정한 공기, 자연과 도심을 연결하는 가로녹지 숲

해안휴양의 숲

섬의 다양한 생물들이 가득한 갯벌 및 해안선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해안생태 숲

치유의 숲

시민의 스트레스저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위한 휴양의 숲

공동체의 숲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커뮤니티 도시숲

꿈과 미래가 있습니다!

안산공업고등학교

안산공업고등학교(교장 강병옥, 상록구 안산공고로 51(부곡동))는 '공업입국의 초석을 이룰 인재양성'이라는 설립 정신에 기초하여 공업 도시인 안산시에 1994년 개교한 사립 공업고등학교이다.

안산공업고등학교는 인성은 고급 기술인의 기본이며 예절은 미래사회의 자기 경쟁력이란 생각으로 인성특성과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과별 특성화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가치 창출 교육 등 기술 교육 전문화에 힘쓰고 있으며, 개설학과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수 있는 지식교육 융합화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취업 특화 명품교육프로그램(공무원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 대기업공기업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 산학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맞춤형 진학 명품교육프로그램(학년별 심화반 프로그램-철저한 내신관리, 완벽한 수능준비, 개인별 맞춤스펙까지 One Stop 지도)도 운영하고 있

다.

기계과

공업 분야의 생산적 실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기능·기술을 습득하고, 유능한 기능·기술인의 양성이 목적이다.

전기과

전기 분야의 기초이론 교육을 바탕으로 전력 설비, 전자기계 제어, 자동화 설비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 기능인 양성을 목표로 인재를 육성한다.

전자과

전자·통신·컴퓨터 분야의 기본적인 전자회로 부품의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전자기술을 이용한 계측제어, 자동화, 전자CAD,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로봇 등 전자·통신·컴퓨터 관련 전문 기술 및 자

격을 습득하게 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화공과

화학의 학문적 기초에 근거한 화학에 대한 기본지식과 맞춤형 실습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 분석적,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실무 능력을 갖춘 기술·기능인의 양성에 목표를 둔다.

디자인과

디자인의 기법과 계획 방법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실무에 활용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창의력과 응용력을 기르는데 목적을 둔다.

컴퓨터과

타 특성화고의 컴퓨터과와 차별화된 컴퓨터 조립 및 수리, 네트워크 및 방화벽 구축, 서버관리 등을 중심으로 하는 Hardware 교육과정과 Windows, Unix, Linux 등의 각종 운영체제를 접할 수 있는 Software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컴퓨터시스템을 관리하고 시스템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능력을 키우는 학과이다.

안산공업고등학교 관계자는 특성화고는 '풍부한 삶'을 살기 위한 지식을 배우는 곳이다. 안산공업고는 기존의 중화학과의 미래의 부가가치가 높은 디자인과 컴퓨터를 접목해 미래성장 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분야의 다기능 기술자, 통합기술 인재를 길러 다방면에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산공업고는 풍부한 삶은 물론 가치 있는 삶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학교다."라고 말했다.

• 문의: 안산공업고등학교 (☎ 031-482-8955)

이선희 명예기자 (iamyou70@hanmail.net)



찾아가는 성호기념관, 대부도 대남초등학교를 가다

성호기념관은 지역 학생들을 찾아가 성호 이익 선생의 삶과 학문의 뜻을 공유하고 나누는 학교연계 교육 '찾아가는 성호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공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성호기념관'은 휴관 일정과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성호기념관 전시·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 학교를 직접 찾아가 선생의 사상을 알리고 성호기념관을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9월 18일에는 23번째 수업으로 대부도 대남초등학교를 찾았다.

대남초 박신영 교사는 "대부도는 행정 구역은 안산이지만 안산시민이라기에 거리감이 있습니다. 3학년 사회 교과 과정에서 '내 고장 안산'을 배울 때 아이들이 안산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안타까워하던 차에 '찾아가는 성호기념관'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역사문



화탐방 아카데미'에 참여해 최용신기념관과 단원미술관에 다녀왔는데, 그와 연계해서 아이들이 안산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다가 바라보이는 2층 교실에 3, 4학년 18명의 아이들이 웅기종기 모여 강사

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세상 온갖 만물에 관심을 가진 성호 할아버지와 함께 말뚝구리, 굴뚝이, 호박, 이끼를 관찰하고, 성호 선생이 벌였던 '삼두회'에 대해 알아본 뒤 '콩잔치'로 삼행시를 짓는다.

'콩으로 벌이는 잔치는 치사하게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어야 맛있다. 콩으로 만든 음식으로 잔치를 치르면 치매를 낮게 한다. 콩을 심는, 잔치를 좋아하는, 치킨을 싫어할 것 같은 성호할아버지' 등의 삼행시를 발표하며 교실은 웃음바다가 된다.

신지는 강사는 "입장료가 성인 500원, 어린이 200원인 이유는 성호기념관의 주인이 안산시민이기 때문이다. 주인인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녀가기 바란다."며 프로그램을 마쳤다.

창가에 놓인 샘골강습소의 '희망이 자라는 텃밭' 모형에 물을 주던 신서인 학생(4학년)은 "성호 할아버지가 콩 농사를 짓고 관찰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요, 상상농사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안산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안산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라고 했다.

• 문의: 성호기념관 (☎ 031-481-2574,5)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우리 지역의 동아리

“친구들과 안산 여행하니 더 신나요!”

안산을 돌아보는 마을 어린이 동아리 ‘다돌이’



대부도 해솔길을 걷는 도중 바다가 나타나 다돌이 아이들이 신나서 연신 물수제비뜨기를 한다. 작은 파도가 들쭉거려자 물에 신발이 젖을까봐 팔짝팔짝 뛰던 아이들이 까르륵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전날부터 흐렸던 하늘도 어느새 푸르게 변해있었다.

‘다돌이’는 ‘다같이 돌아 안산한바퀴’의 줄임말로 초등 3,4학년들이 참여하는 안산 여행 마을동아리다. 감골주민회에서 2013년부터 시작된 다돌이는 엄마 두 명이 교사로 참여해, 동네 아이들과 안산의 지역적

특징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여행하는 동아리로 운영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다돌이 모임은 실내수업과 실외기행이 번갈아 진행된다. 올해는 대부도 민속여촌마을, 누에섬 등대전망대, 시화호조력발전소, 대부해솔길 등을 여행 했다. 또, 신길동 선사유적지, 화정동 너빌마을, 성호기념관 등 안산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에 기행도 갔다. 유명한 관광지보다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갈 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기행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돌이 박사

영 학생은 화정동 너빌마을 기행을 가장 재미있던 순간으로 기억한다. “망월암을 찾아가갈 때 산이 험해서 밧줄을 잡고 올라가 힘들었지만, 막상 망월암을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뻐요. 또, 산길을 걸으며 친구들과 산딸기를 따먹을 때도 신났어요.”

다돌이 기행 여정은 큰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가는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다양한 시설과 상황을 활용해 자유롭게 놀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주어졌다. 성호기념관에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어린이체험관의 시설들을 이용해 볼 수 있었고, 견학을 마친 후에는 성호공원 분수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었다. 김류의 묘소를 찾아 광덕산 자락 산길을 걸을 때도 영지버섯이나 산딸기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과정 자체가 모두 살아있는 교육이었다. 안산에 살고 있지만 아직 못 가본 곳, 평소 많이 들어봤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안산의 인물과 장소를 생생하게 돌아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부모님과 떨어져 동네 친구들과 안산 곳곳을 여행하고, 함께 밥도 먹으며 더 친해졌다. 대부도에선 아이들 스스로 누에섬 등대전망대를 찾는 미션게임을 한 후 바지락칼국수로 배를 채웠고, 시화호조력발전소 견학 때 바다가 보이는 공원에 웅

기종기 돛자리를 깔고 치킨마요 덮밥을 함께 먹었다. 가족들과 한번쯤 놀라갔던 곳이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별 것 아닌 일에도 웃음이 나고 신나는 일이 계속 생겼다. 올해 8월부터 다돌이에 참여한 윤시화 학생은 “친구들과 바다에서 놀고 애기도 많이 할 수 있어 정말 재밌었다.”며, “처음에는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귀찮았는데, 지금은 기행 가는 날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한다.

다돌이는 매년 2월, 사1동 주민센터 2층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매년 20명 정원이 훌쩍 넘을 만큼 인기가 많아, 지난 2월에는 예비뽑기로 대기자 명단을 만들 정도였다. 한번 동아리에 참여한 아이들이 다음해까지 꾸준히 함께하고, 졸업하면 동생들이 다시 동아리로 들어와 오랜 인연을 맺기도 한다. 지난 2년간 마을교사로 다돌이 아이들을 이끌어 온 전정숙 씨는 “다돌이를 통해 2년간 지켜본 애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말도 잘 안 듣던 아이들이 호기심도 많아지고 태도도 월등히 좋아진 모습을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말한다. 안산의 숨은 명소를 여행하며, 동네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다돌이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그만큼 훌쩍 자라고 있었다.

송보림 명예기자 (treehelper@naver.com)

브라보안산은 시민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매호마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를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 481-2042 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래놀이 보급에 힘써요

안산시평생학습관 우수동아리 ‘전래야 놀자’



평균연령 62세, 필살기는 너그러운에 젊음이 못지않은 열정 추가. 지난해 9월 안산시평생학습관에서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개설한 ‘상록수전래놀이지도자’양성 과정을 수료한 시니어들의 평균모습이다.

안산시평생학습관 1층 ‘나는 카페’에서 조태선 회장(63세)과 엄정애(63세), 유승애

씨(62세)를 만났다.

“공식적인 동아리 모임은 주1회지만 수업과 관련해 교구를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위해 수시로 만나요. 이 일을 통해 또래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나의 잠재력도 확인할 수 있어 더없이 좋아요.”라고 말하는 조태선 회장

은 시종일관 웃는 모습이다. 처음 면접을 볼 때 양성과정 수료 후 강사로 활동해야 한다는 말에 주춤했다. 그러나 지도자과정을 이수한 후 안산시 내 9개 기관에서 한 달 동안 16시간 실습을 하고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스피치 교육과 한국전래놀이문화협회에서 진행되는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서 자신감이 불었다.

올해 3월에는 평생학습관 우수동아리로 선정되면서 받은 지원금으로 (사)한국전래놀이보존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전래놀이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다. 해외에서도 봉사 가능한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전래놀이에 대한 관심은 더 커졌다. 같은 놀이지만 이들의 연령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립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전래놀이선생님으로 아이들과 만나는 이들은 “처음에 다소 산만하고 휘방을 놓던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고, 안아주다 보면 어느새 슬그머니 다가와 놀이에 참여한다.”며 놀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할머니로 다가가고 싶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두루 섭렵하고 있는 엄정애 씨는 “평생학습관은 제게 아주 유익한 놀이터예요.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는데 전래놀이지도자로 아이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배우는 걸 즐기는 엄정애 씨는 평생

학습관에서 학습공유 러닝브릿지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브라보 안산’을 통해 정보를 얻었다는 유승애 씨는 “23년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주변을 돌아보니 마땅히 할 일이 없었다. 안산시에서 마련한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창출 교육을 받고 강사로 활동할 수 있어 좋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것을 다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지만 함께이기에 당당히 마주할 수 있다는 시니어들의 용기와 저력이 대단하다. 가정에 집중해 가족을 돌보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밖으로 돌려 사회 곳곳을 밝히 비추는 이들에게 삼복더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전래야 놀자’동아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안산시평생학습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감사의 뜻으로 어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하는 회원들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김은미 명예기자 (iami34@hanmail.net)



제29회 안산시 문화상, 제26회 최용신봉사상 수상자 선정



학술 부문 홍 영 의



예술 부문 명 정 자



교육 부문 류 근 원



지역사회개발 부문 한 우 삼



체육 부문 이 용 호



최용신 봉사상 마 이 gum

안산시는 지난 24일 지역문화와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2015년도 '안산시문화상과 최용신봉사상' 수상자 6명을 선정하고 시장명의로 상패를 수여했다. 수상자는 학술, 예술, 교육, 지역사회개발, 체육 5개 부문의 안산시문

화상 5명과 최용신봉사상 1명으로, 안산 시문화상은 학술 부문 홍영의 씨, 예술 부문 명정자 씨, 교육 부문 류근원 씨, 지역사회개발 부문 한우삼 씨, 체육 부문 이용호 씨가 선정됐으며, 최용신봉사상은 마이금 씨가 선정됐다.

안산시문화상 학술 부문 수상자인 홍영의 씨(51세)는 안산지역 근현대 사료 수집 사업 및 디지털 안산문화 대전 선행조사 연구사업 등에 참여하며 안산지역의 역사 자료 조사, 수집, 발굴, 보존 작업에 매진해 왔으며,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 사업 및 안산지역 3.1독립만세운동 연구조사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안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 시민들이 안산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고, 예술 부문 명정자 씨(67세)는 한국무용협회안산지부 명예 회장으로 안산무용축제 티움을 통해 무용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무시키며 안산 무용문화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안산 무용 인구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교육 부문 수상자인 류근원 씨(61세)는 41여 년간 교직에 몸담아 왔으며, 현재 안산덕성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으로, '내고향 안산 · 시흥'이란 자료 발간을 시작으로 애향심 갖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칭찬엽서를 활용한 칭찬운동과 시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행복한 학교, 오고 싶은 학교조성을 위한 노력과 글쓰기 교육활동과 구연동화, 인형극에도 직접 참여하여 지역 교육발전 및 봉사에 헌신한 공로로 선

정됐으며, 지역사회개발 부문의 한우삼 씨(71세)는 기업인으로, 2008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7년간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경제 부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관내 기업의 생산성 증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지원과 기업혁신 순회 교육 등 각종 경영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 속에서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을 지역사회에 심어 주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체육 부문의 이용호 씨(49세)는 2005년 12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안산시청 유도 선수단 감독으로 재직하며 탁월한 지도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산시청 유도선수단을 각종 국내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최고의 팀으로 성장시켰다. 안산시 소속 유도선수 6명 중 4명이 국가 대표로 선발되어 많은 활약을 하고 있어, 안산시가 여자유도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최용신봉사상 수상자 마이금 씨(61세)는 현재 안산도시농업연대의 공동대표로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건강한 친환경 먹거리 확산을 위한 활동과, 여성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의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여성능력 개발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 문의: 안산시 문화예술과 ☎ 031-481-2798

“함께여서 힘이 됩니다”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해맑은 미소’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정신장애인 사회 복지시설 ‘해맑은 미소’를 찾았다.

‘해맑은 미소’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이 희망을 되찾고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공동생활가정이다. 정신장애인에게 적절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건강한 가정을 경험하도록 기본적인 건강 관리와 의식주를 영위하고, 구직 및 취업 유지 등 이들의 자립을 돕는다.

“조현증(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질환자들은 약물관리를 하면 정상인과 다르지 않

습니다. 정신질환은 후천적으로 생겨난 경우가 많아요. 사업실패, 사회적 상처 등으로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죠. 병원에서 치료 후 시설 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울타리복지교회 선동현 목사는 정신장애인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NGO 단체 ‘정신장애인 옴부즈맨’ 창설,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부곡중학교 인근에 자리 잡은 ‘해맑은 미소’는 15세 이상 정신장애인(남)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로 2014년 6월에 설립했다. 정원은 4명이지만 현재 3명이 거주하고 있다.

일일생활일지에 약물복용, 샤워, 식사·빨래·청소당번, 병원·약국 방문, 용돈 지출, 주간·외부활동, 입주자 평가 항목을 표시해 관리한다. 부곡동의 조용한 생활공간은 점점공원을 통해 성호공원, 노적봉 코스나 수암봉으로 산책을 할 수 있어 이들의 정서순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지난 4월에 입소했다 독립한 A씨(38세)

는 파과형 조현증으로 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선 목사를 만났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인 A씨는 그룹홈에 있는 동안 안양에 있는 학력인정고등학교에도 다니고, 택배, 공장 등 인력 회사를 통해 돈을 벌었고, 임대주택에 당첨돼 현재 논산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곳에서도 선 목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학업, 진로에 대해 고민을 나눈다고 한다.

입소한 지 한 달쯤 되었다는 B씨(48세)는 “15년여 병원생활을 했는데, 병원보다 훨씬 좋다. 여건 규율이 없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배려해주어 감사하다. 함께 지내는 분들과 서로 아픔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치유가 된다.”며 “마음이 맞아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종교 안에서 힘을 내고 회복해 모두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C씨(27세)는 “20대 초반부터 관계망상으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았다. 6년 동안 9

번째 병원을 드나들었다. 폐쇄병동보다 여유로워 좋다.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조금만 마음이 들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차분히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증상이 호전되면 취업도 해야 하고 독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동현 목사는 “이곳에서 편안한 심을 얻어 정신적으로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자 밑거름이 되고, 지역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사라져 모두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이 되기 바란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후원 등 도움의 손길을 당부했다.

• 문의: 해맑은 미소 cafe.daum.net/cime ☎ 010-2323-1699

신선영 명예기자 <woghk@hanmail.net>

뉴스 미란다 원칙

براوبان산에 게재된 내용중

문의사항, 반론, 정정 요청사항이

있으신 분은 해당부서 및 안산시청 공보관실 (031-481-20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의회 이모저모



제22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24일 3차 본회의서 '2회 추경안' 등 안건 16건 의결

안산시의회가 24일, 제22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16건을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조항을 미아·기아·가출인 발견시 경찰관서로 인계하는 것 등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안'의 행정

재산 무상사용 부분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 5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안산시 사회 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진희 의원 대표 발의)과 '안산시 자살예방센터 위탁동의안' 등 안건 5건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심의 결과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수도 급수조절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도 세대별 계량기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했다.



안산시의회 의원들, 지역 사회복지시설 4곳 위문

안산시의회(의장 성준모) 의원들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사회 복지시설을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만나복지원과 초지동 '안산 밀알센터', 상록구 이동 '맑은동산', 본오동 '사랑뜰' 등 단원·상록 양구 지역 사회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시설 입소자들을 위로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번 격려금은 의회 공통경비를 절감해 마련한 것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소

의 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고자 각 복지 시설에 전달했다. 시설을 방문한 의원들은 격려금 전달에 앞서 시설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성준모 의장은 "이번 방문이 가족들과 나누는 따뜻한 정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 지대를 줄이는 데에 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책男책女 평생학습 **썸**타다

10월 24일, 호수공원에서
'안산시 평생학습·책 문화한마당' 열린다



10월 24일(토) 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책男책女 평생학습 썸타다'라는 주제로 '안산시 평생학습·책 문화한마당'이 열린다. 안산시 평생학습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안산시 전체 도서

관과 평생학습기관, 관련기관·단체, 학습동아리 등이 참여해 시민이 다함께 소통하는 열린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의미를 되새기고 책을 통해 배우는 즐거움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상록구어머니합창단의 축하공연과 난타, 밴드, 우쿨렐레, 무용 등 평생학습동아리의 공연이 펼쳐진다. 오후에는 시장식과 함께 수학, 하모니카, 태권무 등 평생학습동아리 공연이 이어지고 오후 4시부터는 재즈, 포크, 클래식 음악과 함께 이철환 작가의 감성 북콘서트가 진행된다.

중앙도서관은 「연탄길」, 「위로」의 이철환 작가 북콘서트와 텐트인문학 「나는 일러스트레이터다」를, 일동도서관은 텐트인문학 「까칠한 인생」을, 관산도서관은 텐트영화제 「스크린에서 만나는 베스트셀러」를 마련한다.

KBS 2TV <다빈치노트>에 출연해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밥장(Bob Chang)의 「나는 일러스트레이터다」는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완득이, 두근두근 내 인생, 우아한 거짓말, 괴물들이 사는 나라,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 등 도서의 영화감독·영화평론가 초청 강연 「스크린에서 만나는 베스트셀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기획전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안산시 작가·문인·교수와 우리시대 작가·지식인들이 추천하는 「명사의 서거」, 자연사 관련 도서를 전시하는 「자연사 도서전」, 안산시민이 직접 추천한 도서를 전시하는 「책남책녀」 부스에서는 책에 얹힌 나만의 사연쓰기 이벤트를 준비한다.

도서, 문구, 장난감 등 시민들이 자율적 판매 또는 교환하는 「나눔장터」, 책장 속 잠자는 도서를 바꿔갈 수 있는 「도서교환전」, 은빛독서나눔이·안산동화읽는어른의 동화구연 「책놀이터」도 시민의 참여를 기다린다.

• 문의 : 안산시 평생학습과 ☎ 031-481-3456, 중앙도서관 ☎ 031-481-3862

신선영 명예기자 <woghkah@hanmail.net>

독/자/투/고

기쁜 날의 정취

김 영 혜 (상록구 호동로)

오늘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남편이 집으로 오는날
봄날의 미풍같은 은밀한 설레임이 인다
눈물겨운 고향의 맛이아 하던
어머님표 부대찌개 끓여줘야지
고춧가루,고추장, 간장, 다진마늘,
기쁨도 한데 섞어
빠알가니 양념장도 만들어야지
찌개가 그리웁같이 끓어오르면
남편의 두툽한 입술은
오뉴월 함박꽃처럼 슬며스 빙글어지겠지
커튼을 활짝 젖히니
마당에서 놀던 햇빛 한 장이
가슴에 팔짝 뛰어들어와
때 아닌 널뛰기가 한창이다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 시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무료 구독신청 031-481-2042, E-mail : bravo@iansan.net

사진으로 보는 안산

9월의 오정각길

사진 김진국 명예기자 <hanmarus@naver.com>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사진 김진형 명예기자 <econojin@naver.com>



9월의 오정각길 • **한줄 정보** 오정각은 단원구 화정동에 있는 조선 후기의 정각이다. 충익공 김문기와 아들 현석의 충신 정문, 손자 충주, 증손자 경남, 4대손 약전의 효자 정문 등 5개의 정문이 모여 있어 오정각이라 불린다.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 **위치** 상록구 한양대로 55(사동) • **한줄 정보** 안산시에 위치한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 2009년 12월, ERICA캠퍼스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됐으며 8개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 읽는 안산’ 10월 추천도서

아동

수상한 아파트
박현숙 / 북멘토



열세 살 소녀가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지은 아파트에 머물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다. 비록 이혼을 앞둔 부모 때문에 고모네 맡겨진 처지지만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진이의 모습은 무게 있는 주제도 다소 밝고 익살스럽게 보여준다. 이웃을 향한 관심과 보살핌, 함께 사는 것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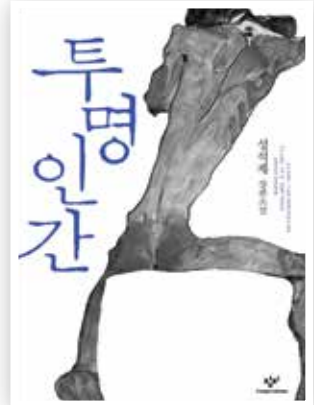
까칠한 재석이가 열받았다
고정욱 / 애플북스



재석이와 친구들은 은지를 돕기 위해 청소년들의 잘못된 성 관념과 심각한 성문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고 그 사이 각자의 꿈을 구체화시켜나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더불어 자기 몸과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하게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간다. 이처럼 저자는 재석이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과 태도로 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제시하며 꿈이 노력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지를 일깨워준다.

성인

투명인간
성석제 / 창비



어려운 시절을 누구보다 열심히, 착하게 살아온 주인공 '김만수'의 이야기를 통해 굴곡의 역사 가운데 던져진 한 개인의 운명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이 소설은 우리 주변 어디엔가 있지만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한다. 너무나 흔해서 눈에 띄지 않지만 누구보다 기막힌 인생을 살아온 '김만수'라는 이름의 인물이 우리 시대의 지극히 평범한 인간상을 보여주는 동안 읽는 이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한다.

•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 031-481-3868)

알아두면 유용한 **소식** in 안산

〈주정차 CCTV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글·그림 이영호(kaljebi05@naver.com)



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해 주세요~

멍! 주정차는
정해진 곳에서만~!

안산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주정차 CCTV 단속지역(현장단속 제외)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소통로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상록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http://sangnok-gu.iansan.net>)
- 단원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http://danwon-gu.iansan.net>)
- 안산시 상록구청, 단원구청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방문, 민원창구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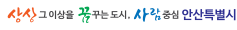
■ 문의전화 : 상록구청 교통과 (☎ 031-481-5277)
단원구청 교통과 (☎ 031-481-6285)

■ 주의사항

-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7일 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산시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사랑** 중심 안산특별시

안산시
자원 재활용 활성화
작품 공모전



버려진 자원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자원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안산시 자원 재활용 활성화 작품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명

안산시 자원 재활용 활성화 작품 공모전

공모주제

버려진 자원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재활용 활성화

공모분야

재활용 폐품을 활용한 전시 가능한 작품

응모자격

안산시 관내 소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참가유형

1인 1작품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1부, 작품설명서 각 1부, 재학증명서 1부

접수기간

2015. 10. 28(수) ~ 2015. 10. 30(금) 3일간

작품제출

① 제출방법 : 방문접수
② 접수처 :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고잔동) 환경교통국 3층 청소행정과
③ 기타 : 세부사항 및 신청서식은 안산시 홈페이지 (www.iansan.net) 참조

시상내역

시장상 - 초등부/중등부 부문별 각 6명(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3) ※ 부상 없음

문의사항

안산시 청소행정과 (☎ 031-481-3537)

유의사항

- 작품주제에 벗어나거나 전시가 불가능한 작품 또는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였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작품과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공모전 수상작의 저작권은 안산시에 귀속되며, 안산시 재활용선별센터에 전시되어 교육자료로 활용됩니다.

경기도 금융상담센터(안산센터) 운영안내



경기도 금융상담센터는?

경기도민에게 각종 금융상담서비스(재무상담, 채무조정상담)를 제공하고, 관련 복지 서비스 자원의 연계를 통한 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안정망 역할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내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 상담시간 : 평일 9:00 ~ 18:00

● 운영장소 : 상록수역 앞 시민사랑방 내

● 주요 상담 분야

-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면책
- 고객의 상황과 미래목표를 반영한 재무상담
- 바퀴드림론, 소액대출
- 필요 시 사회복지서비스 (무한돌봄, 일자리 등) 연계

※ 채무조정 : 연체 6개월 이상의 채권을 인수하여 채무부담 경감 지원

※ 바퀴드림론 :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 ⇒ 연 8% ~ 10.5% 저금리 대출로 전환

● 상담절차

인터넷, 전화 상담신청 ⇒ 상담사 배정 ⇒ 재무 및 채무조정 상담 ⇒ 고객맞춤형 방안제시

● 문의전화 : (031) 481-3750, 502-3236

경기도금융상담센터 031-888-5550, 5551

http://g-counseling.gcgf.or.kr | ※경기도금융상담센터는 전고객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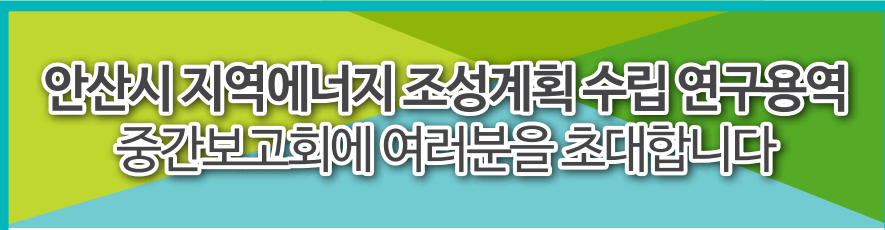
경제인프라는 미래

NEXT경기

경기신용보증재단

GCGF

안산시 지역에너지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 2015. 10. 22(목) 14:00 ~ 15:30

○장 소 : 안산시청 대회의실(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참석대상 : 안산시장, 시의원, 에너지전문가, 단체, 시민

※ 안산시 에너지 조성계획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안산 및 대부도 카본제로도시 조성 방안
- 안산시 에너지 비전 2030선포(2016. 1월 예정)를 위한 세부실행과제

안산시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용역기간 : 2015. 5 ~ 2015. 12 (착수일로부터 7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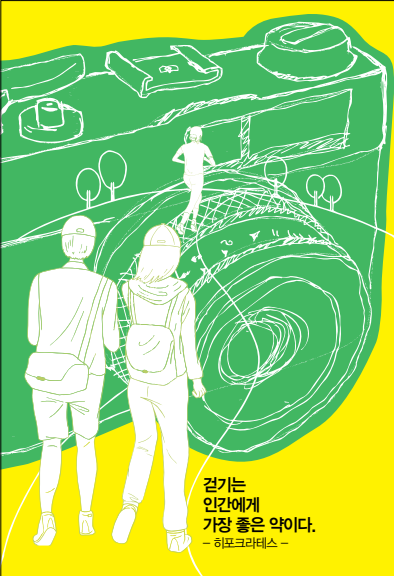
○용역업체 : (사)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서울 종로구 소재)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안산 비전 및 목표 제시
- 대부도 카본제로도시 조성방안 마련
- 에너지 생산·절약·효율화 분야 중장기적 정책방향
- 지역에너지 정책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및 정책 과제 도출 등

문의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 031-481-2927)

「상록 트레킹!」 사진공모전



상록 트레킹?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 시민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상록구에서 선정한 걷기에 좋은 수변길, 공원길, 숲속길 등 9개 코스

※ 코스별 세부위치는 상록구청 홈페이지 참조

주제 '상록 트레킹'의 멋과 추억

접수기간 2015.10.12.~11.13.

참가자격 누구나(응모자격 제한 없음)

참가방법

안산시 상록구청 홈페이지(<http://sangnok-gu.iansan.net>)에 신청서 다운로드

• 온라인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vaha@korea.kr)

• 우편접수 : 우)15585,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10, 5층 행정지원과(상록구청, 사동)

※ 우편접수는 2015년 11월 13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사항 사진(1인 2점 이내)과 사진에 대한 짧은 글 기재한 신청서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촬영기기 표시

※ 사진규격 6MB이내 사진파일, 흑백 또는 컬러 인쇄 사진(11×14cm)

결과발표

2015년 11월 30일 예정(개별통지 및 사진공모전 홈페이지 등 발표)

시상내역

구분	수량	상금(원)	훈격
계	17	2,000,000원	
행복상(대상)	1	400,000원	안산시장
소통상(최우수)	2	200,000원	-
희망상(우수상)	2	100,000원	-
열정상(입선)	4	50,000원	-

주의사항

- 제출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은 안산시에 귀속됨
- 순수 창작물로 타 공모전 입상작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입상 발표 후에 확인됨
- 경우에도 입상이 취소됨
- 제출된 작품의 초상권, 저작권 관련 문제는 출품자에게 책임이 있음

문의처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031-481-5101~3

시정소식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시정소식에 바라는 점 또는 독자평을 남겨주세요. 주소변경시 꼭 전화주세요. (전화 ☎ 031-481-2042, 팩스 031-481-3224, E-mail : bravo@iansan.net)